

화폐 읽기

화폐의 의미작용과 가치*

원용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홍성일***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화폐를 소통 미디어로 간주하고 화폐가 야기하는/실패하는 소통 형식을 추적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를 경제적 역할/가치척도 수단, 유통 수단, 축장 수단, 지불 수단)에만 한정해 논의할 수는 없다. 사회 전 영역에서 인간을 매개하고, 의미를 전하는 사회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로도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인식 아래 화폐에 대한 언어학적/기호학적 이론화를 시도했다. 마르크스의 가치형태론과 언어학/기호학을 접합시키고자 했다. 접합을 통해 소통 미디어로서 화폐는 두 가지 의미작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나는 무한한 부의 축적을 욕망케 하는 메타 의미작용이다. 그 결과 화폐는 두 번째 의미작용인 개별 상품들 사이의 구체적이고 중층적인 의미작용들을 대신하게 된다. 화폐가 주인 기표가 되며 모든 기호들의 의미작용은 파괴되고 아무것도 아님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의미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소통 미디어로서의 화폐는 모든 개별 주체의 보편적인 상상적 동일시의 대상이 되었다. 화폐는 개별 기호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대표하는 지위를 점한다. 그러나 대표와 묘사는 지속적인 긴장을 일으키며 주인 기표로서의 화폐의 지위를 위협한다. 마르크스의 보나파르티즘 분석에 대한 화폐가 호학적 재독해는 이와 같은 긴장의 구체적 국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즉 묘사될 수는 있으나 보나파르티즘에 의해 대표되지 못하고 이탈된 주체들은 체계의 위험 요소로 상존하였다. 소통 미디어로서의 화폐는 의미작용의 작동을 통해 화폐 체계의 성립과 외해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주제어: 화폐, 미디어, 기호학/언어학, 의미작용, 가치형태론, 보나파르티즘, 대표/묘사

* 이 연구는 서강대학교 특별연구과제지원(과제번호-20051506)을 받아 완성되었습니다.

** yongjin@sogang.ac.kr

*** hongsungil@sogang.ac.kr

“돈의 노예 이미 너에게 남은 자존심은 없었어
그들이 네게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만 하는데”
— 서태지와 아이들, <1996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 중

1. 화폐 사회

‘서태지와 아이들’은 1996년에 <1996,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라는 곡을 발표한다. 이는 IMF 통치 경제 후 벌어질 우울한 풍경의 전주곡이었다. 1997년 도둑처럼 찾아온 외환위기는 노래가사처럼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갔다. IMF 관리 체제하에서 있었던 일련의 경제적 변화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삶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의식 체계, 일상 등 삶의 방식은 그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바뀌었다. 이도저도 아닌 화폐¹⁾만이 유일한 안전판이라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매일같이 공공영역 해체가 벌어지는데도 그 같은 믿음을 펼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익숙하게 사회적 가치를 돈의 가치로 환산해내고 있다. 삶의 동기들도 모두 화폐 축적을 향한 욕망으로 바뀌었다. 재테크 담론은 일상 깊숙이 침투했다. 식탁 위와 거실을 넘어 침대 막의 주요 화제가 되었을 정도다. ‘모두가 돈을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은 1997년 이후, 보다 많아졌고, 강도도 세졌다. 노랫말처럼 그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개인적 경험이나 전해들은 이야기로 묵시록적 재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2007년 11월 12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우리의 판단과 일치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의 <국민의식조사, IMF 10년 - 한국 사회 어떻게 변했나> 조사는 서태지의 노랫말을 통계로 바꾸어 말하고 있었다. 10년 사이 돈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의 풍조는 팽배해졌다. 10년 전에 비해 성공의

1) 이 글에서 ‘돈’과 ‘화폐’는 서로 같은 의미로 교차 사용한다. 다만 일상과 관련해 적을 때는 돈이라는 용어를, 학문적 논의와 관련해서는 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건으로 돈을 유품으로 팝는 사람들이 늘었다(35.8 → 60.5%). 반면, 개인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수는 줄었다(38.2 → 24.2%). 가장 큰 두려움으로 실업, 취업 문제, 경기변동을 손꼽았다. 환경오염, 노후문제, 기상이변 등도 경제문제로 인한 두려움에 비하면 큰 걱정거리도 아니라고 답했다. 이렇듯 당장 돈으로 환원될 사회적 의제들에 집착하고, 더 많은 수입이 삶의 질을 보장할거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었다.²⁾

경제 위기 이전에도 물질만능주의, 화폐 승배는 존재했었다. 자본주의 사회 내 문화의 주요 풍경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런 문화적 배경 없이 자본주의 경제가 재생산될 수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일반적이라고 해서 자연스럽다고 밀해선 안 된다. IMF 통치 경제하에서 대중들의 마음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돈에 휘둘렸다. 늘 돈 타령을 하며 살아온 대중이지만 이처럼 흥얼거리는 노래 속에서도, 식탁에서도, 베갯머리에서도 휘둘리며 살지는 않았었다. 1997년 그 날 이후의 특수성(conjuncture)은 바로 여기에 있다.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사건은 일거에 문화적 패닉을 연동시켰다. 경제 결정론이 사람들의 의식을 사로잡았다. 돈이 그 중심에 있었고, 패닉의 엔진 역할을 했다. 외환위기는 돈이 부족해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돈의 부족은 사람들의 관념 속에 돈을 각인시켰고, 인간 실존조차 돈의 도움으로 확인되곤 했다. 돈은 권위로, 때로는 공포로 다가왔다. 돈 없이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자본주의의 냉혹함이 순식간에, 보다 강렬하게 의미화되었다. 화폐는 경제적 거래를 위한 도구임을 넘어 대중의 영혼을 잠식한 소통체 역할도 해냈다.

이 글은 ‘화폐는 거래를 위한 경제적 도구이면서 의미를 나누는 소통체(communicator)이기도 함’을 이론화하는 목적을 갖는다. 새삼스러운 주장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돈은 사람 간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돈을 빌려 줄 수 있음은 우정의 정표이기도 하지 않은가. 경조사 때 내는 봉투의 두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런 탓 아닐까. 액수에 따라

2) 원용진(2007)은 황우석 사태, D-War 논쟁에서 드러난 애국주의, 성공신화 등을 IMF 통치경제 이후 삶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이와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

뇌물이 되기도 하고 촌지도 되기도 하는 상황을 보자면 돈은 분명 소통체 역할을 해내고 있다. 몇몇 선각자들은 이 같은 상식적 징후를 모아 이론화하려 했었다. 일찍이 짐멜은 근대화를 목도하며 사람들 간에 생긴 새로운 연대를 화폐와 연관 지었다. “중세 봉건 시대 또는 자의적인 결사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간 연결 관계를 창출했는데 그 동기는 궁극적으로 돈”이라고 파악했다(Simmel, 1896/2005, p. 17). 마르크스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자본주의 내 개인과 사회, 심지어 자연과 연결짓는 데 화폐가 주요 매체로 역할 한다고 간파했다. “화폐가 나를 인간적 삶에 결합시키고, 사회를 나에게 결합시키고, 나를 자연과 인간에 결합시키는 끈이라면, 화폐는 모든 끈들의 끈이 아니겠는가?”라며 돈의 사회적 역할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화폐는 인류의 외화된 능력”이라며 확대 해석하기도 했다(Marx, 1844/2006, pp. 177~178). 맥루언은 짐멜과 마르크스의 화폐 언급을 극적으로 발전시켜 형상화했다. 미디어는 인간 확장이며 인간 변형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던 맥루언은 화폐를 미디어 중의 미디어라고 말했다(McLuhan, 1964/1999, p. 201). 화폐야 말로 경제적 미디어를 넘어선 미디어, 즉 미디어 이상의 미디어라고 파악했다. 외환위기라는 화폐 사건 이후 대중의 일상, 가치, 신념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은 돈이 경제거래 미디어 이상의 미디어, 즉 사회적 의미를 생산, 전이하는 미디어임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러나 정작 소통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미디어 이론 등에서 화폐를 주요 미디어로 간주한 혼적은 찾기 어렵다. 커뮤니케이션 연구 공동체는 ‘화폐읽기’를 오랫동안 팔호 쳐두고 있었다. 화폐가 인간관계 맷기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해 온 듯하다. 간혹 미디어로 파악한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를 실어 나르는 미디어, 즉 경제 교환 수단으로 파악할 뿐이었다. 화폐가 경제적 소통을 넘어 사회적 소통을 행하는 미디어임을 밝히는 데까진 이르지 못했다. 화폐를 의미 소통 미디어로 확장 인식해 보려던 사회학자, 정치경제학자, 문명사상가의 도움을 빌려야 할 것 같다. 화폐를 ‘인간의 외화된 능력’으로 본 마르크스, 화폐를 인격적 총체와 객관적 총체에 끼어든 ‘샌드위치’(Simmel, p. 13)로 파악한 짐멜을 추적해야 ‘화폐는 사회적

실재이며 문화적 매개'라는 인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들의 선행 연구들에 의존해 얻은 우리의 궁극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화폐가 의미를 실어 나르는 소통 기능을 가짐에 동의하면서 일반 기호와는 전혀 다른 특수한 의미작용(signification) 과정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갖는 특수 의미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르크스가 꿨던 화폐론과 소쉬르의 기호학을 동시에 동원하여 한다. 이들의 동시 동원은 단순 비교를 위함이 아니다. 화폐를 의미 생성의 기호(sign)로 간주한다면 마르크스주의 화폐론 또한 기호학으로 풀이가 가능할 거라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화폐 설명으로 이어지는 마르크스의 가치형태론을 기호학과 연결짓는다면 화폐기호학을 형성하는 일이 가능할 거라 짐작했다. 또한 가치형태론과 기호학을 연결하면서 기호학이 가치, 의미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약한 고리를 찾아내고, 그를 마르크스의 가치형태론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화폐기호학을 시도하되, 가치형태론에서 찾을 수 있는 약한 고리는 기호학으로 보완하고, 기호학에서 드러날 수 있는 맹점은 가치형태론으로 메우는 대화적(dialogical) 작업을 펼치려 한다. 상호 보완을 통해 화폐기호학의 외연을 보여주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이어 마르크스 정치이론을 통해 화폐기호학의 내포, 즉 그 정치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화폐는 특수한 의미작용을 하는 미디어'임을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돈의 입을 틀어막은 소통학

마틀레르 부부는 근대적 커뮤니케이션 연구 맹아를 경제 과정에서 찾으려 했다. 19세기부터 적극적으로 이뤄졌던 통상과 유통(trade and flow), 그리고 사회 유기체설을 기반으로 소통학(science of communication)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Mattelart & Mattelart, 1998, pp. 5~7).³⁾ 그들은 먼저 통상과 유통이라는 사건이 사회를 유기체로 보려는 시도를 가능하게 했다고 파악한다. 이어

사회 유기체설이 소통학의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아담 스미스의 노동 분업 개념을 동원한다. 스미스는 “통치가 잘 되는 사회(well-governed society)에서는 최하층의 국민까지도 전반적 풍요로움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분업 결과 각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Smith, 1776/2003, p. 14)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통상과 유통이 잘 이뤄지는 사회에서는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과 통한다. 그 결과 구성원이 진실로 사회 이익을 증진시켜 보겠다고 나서는 경우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 더 효과적으로 이익 추구를 증진시킨다(Smith, p. 500). 이 같은 입장이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는 전형이다. 신체 기관의 유기적인 예정·조화 탓에 유기체가 생존되듯, ‘통치가 잘 되는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과 분업을 통해 ‘전반적 풍요’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소통을 논의하는 소통학의 임무는 자명해진다. 통상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통제가 잘 이뤄지는 유기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는다(Mattelart & Mattelart, p. 6). 결국 소통학은 “어떻게 통상과 유통을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동원하며 사회를 잘 ‘통치’할 것인가”를 주요 연구문제로 갖게 된다.⁴⁾

이처럼, 통상과 유통 그리고 사회 통제에 정초해 성립된 탓에 주류 소통학은 그 학문적 성격 전개를 일정 방향으로만 펼치게 된다. 아담 스미스류의

3) 소통학의 모(母) 집합이라 할 수 있는 사회학 성립 근저에도 통상과 유통을 찾을 수 있다. 고병권(2005, 217~222쪽)은 ‘인간관계의 일반적 동질성’, ‘서로 다른 것들을 교환 가능케 해주는 공통의 실체에 대한 상상’, ‘사회학자들의 ‘사회’에 대한 관념’이 경제적 성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 근대적 소통학이 경제적 토대에 기반을 둔 결정과정을 거치고,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데올로기적 왜곡이 있었음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스튜어트 홀의 지적처럼 ‘호주머니 속의 임금, 은행 예금, 동전지갑 속의 동전, 서랍 속의 돈 같은 엄연한 사실’은 분명한 ‘현실적 효과’, ‘현실적 관계’를 갖는다. 이는 왜곡, 허위의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성립된 소통학이 ‘부분적’이 아닌 ‘적절한’, ‘일방적인’이 아닌 ‘분화된 총체성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나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Hall, 1983/1996, pp. 29~59.

주류 경제학과 방향, 경향을 공유하게 되었다. 주류 경제학이 가정한 경제적 행위자가 주류 소통학에서는 소통 행위자로 전이된다. 주류 경제학은 로빈슨 크루소 즉 ‘개인적 생산물’을 갖고 통상(거래)에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람’을 경제적 행위자로 가정하였다. 주류 소통학도 로빈슨 크루소를 독립적인 소통 행위자(agent)로 규정하였다. 소통 개념도 주류 경제학에 힘입어, 특정한 의도를 가진 개별 독립적인 송신자가 ‘가치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모든 요소’(Marx, 1867/2001, p. 99)를 담은 메시지를 거래하고 유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메시지를 거래하고 유통하는 공간을 유기체에 비유하였듯이, 사회 또한 합의된 가치를 준수하는 개인들의 조화로운 작동 결과로 이해했다. 결국 소통(혹은 메시지의 거래)을 ‘메시지 전달’로 한정한 채 이해했다(Fiske, 1990/2001, p. 23). 소통의 효율성은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메시지 전달의 정확성과 통치를 위한 효율성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했다.

‘고독한’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 통상, 유통을 이해한 경제학은 소통학에 여러 문제점을 안게 해주었다. 로빈슨 크루소를 예로 들어 설명한 시도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문학 속 인물인 로빈슨 크루소를 현실로 소환해 보자. 그는 실상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언제나 ‘의존적’인 사람이다. 그는 사람을 부릴 줄 알았고, 거래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자산을 관리하는 상업 부기를 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였다. “인격적 예속이 물질적 생산의 사회적 관계와 이에 의거하고 있는 생활의 여러 부문들을 특징짓는”(Marx, 1867/2001, p. 99) 중세봉건제 시기의 신분적 존재는 아니었다. 그는 개인을 넘어선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사람을 고정시키는 자본주의 내 존재, 즉 사회적 존재였다. 소설은 재미를 선사할 요량으로 사회적 존재를 독립적인 고독한 존재로 규정해 착시를 제공했을 뿐이다. 그런데 경제학과 소통학은 그 인물을 실제적 인물로 대했다. 문학전략을 사실로 받아들였던 셈이다. 소통학은 소통 개념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폭넓게 기반을 둔, 규범에 대한 근본적 합의’로 규정했지만 정작 합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산되는지, 구성원들이 합의에 어떻게 자발적으로 동의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Hall, 1982/1996, p. 241). 합의된 가치가 발생하는

과정과 그를 중재(mediation)하는 방식은 ‘보이지 않는 손’의 설명처럼 블랙박스로 남겨두었다.

주류 경제학과 소통학은 화폐를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사회를,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 과정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화폐를 존재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투명한 존재로 규정한 셈이 되었다. 있어도 질문하지 않는 ‘빛’처럼 자명한 존재로 대접한 것이다. ‘빛’은 정작 다른 것을 다 보이게 해주면서도 자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대접받고 있지 않은가. 주류 경제학과 소통학에서는 화폐도 그 같은 취급을 했다.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작용까지 일으키지만 정작 주목하지 않은 채 투명체로 인식해 왔다. 경제학이나 소통학에서는 화폐를 엄연히 눈앞에 두고서도 찾지 못하는 ‘도둑맞은 편지’처럼 대한 셈이다.⁵⁾ 이처럼 자명함과 투명함에 현혹된 탓에 주류 경제학과 소통학은 화폐가 야기하는 의미작용에 눈길을 주지 못했다. 물론 아주 작은 차이가 있기도 했다. 경제학이 화폐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자연스러운 도구(instrument)로 본 것에 비해(Smith, pp. 26~33), 소통학은 화폐에 의미 영역이 일정 부분 있음을 간파하고는 있었다. 경제학이 상품의 거래와 유통을 다룬다면, 소통학은 당연히 의미의 주고받음을 다루는 영역이라며 스스로를 특화하며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경제학이 화폐 가치를 주요 소재로 다루었듯이—소통학도 화폐를 미디어나 메시지와 동등하게 파악함으로써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중재, 합의 생산 과정을 다루는 데까지 이르진 못했다.

탈코트 파슨즈의 화폐 이해가 그 단적인 예다. 주지하다시피 파슨즈는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고민하며 상징 교환의 소통을 주요 제도로 파악했던 인물이다(Parsons, 1967). 파슨즈가 화폐를 사회 내 주요 제도로 파악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그는 화폐를 ‘코드 내에서 의미가 부여된 상징을 사용하면서 일반화된 소통 미디어’라고 파악했다(Parsons, p. 357). 주류경제학적인 해석과는 달리 그는 화폐에 상징 작용 과정을 부여하며 일정

5) ‘도둑맞은 편지’의 비유는 Lacan(1956/1990)에서 빌려왔다. 이에 대해서는 5절에서 보다 자세히 상술할 것이다.

정도 진전을 보인다. 하지만 그의 진전은 반결음 정도 나아가는 것에 그치고 만다. 파슨즈는 ‘상징’ 개념을 물질적 실체와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는 기호에 한정시키고 있었다. “‘개’라는 글자가 실재하는 개를 보여주지 않고도 누구에게나 개의 이미지를 전하는 상징이듯, 화폐도 경제적 교환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상품을 코드화하는 상징”(Parsons, p. 358)이라는 게 파슨스의 인식이다. 그의 상징에 대한 인식은 ‘상징, 즉 화폐는 명목론적일 뿐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간스만의 지적처럼 파슨즈는 ‘상징은 중립화된 의미 운송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Ganßmann, 1988, p. 290). 화폐를 교환 도구로 파악한 경제학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코드화’ 개념을 파슨스가 사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드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파슨스는 경제학적 설명을 넘어 화폐의 소통적 측면에 관심을 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슨즈는 코드화를 전혀 다른 의미로 정의해 사용하고 있다. 그에게 코드화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절차들을 생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화폐는 개별 행위 주체들에게 시간과 상품의 구속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코드화의 결과일 뿐이다(Parsons, p. 359). 파슨스는 상징, 코드, 코드화와 기호학적 용어를 사용하며 의미 전달과정을 화폐와 연결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의미 중재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다. 그에게 소통은 오로지 사회적 효율성과 관련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파슨즈의 사회학적인 화폐 설명은 주류 경제학적 설명의 모사본에 지나지 않는다. 코드화가 진정으로 인간 자유를 증진시키는지, 코드 안에서 지배와 동의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답을 누락시켜 놓고 있는 탓이다.

파슨스가 생각한 바와 달리 상징, 코드, 코드화 등은 효율성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개념들이 아니다. 하나의 사물에 이름을 붙여 상징화함은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을 유도하고 의미를 규제하게 된다. 가령 통상과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소비자’와 ‘생산자’로 구분한다고 하자. 구분을 통해 이름을 붙이는 한 투명하고, 중립적인 의미 이상이 발생한다. ‘소비자’와 ‘생산자’라는 구분과 명명은 “이익에 따라 구성원들이 움직이고, 구매와 판매를 통해 사회가

조직되고, 화폐에 의해 운용되는 자본주의 세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Dyer, 1989, p. 505). 의미라는 언어 속에 세계가 투명하게 반영되어 발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세계를 분류해, 분류를 사회적 사유 및 상식 속에서 받아들 이게 하는 용어, 범주, 준거 체제들 간 차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Hall, 1985/1996, p. 92)이 의미다. 의미는 — 파슨즈가 말한 것과는 달리 — 상징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해석 차원에 머물지 않고 특정 사회 현실, 사회적 효과를 창조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과 유통에 참여하는 자를 소비자와 생산자로 나누면 그 어느 이름으로도 호명되지 않는 이들을 남기게 된다. 이름을 갖지 못한 그들은 통상과 유통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시스템 오류이거나 속아져야 할 대상으로 대접 받는다(Cleaver, 1995/1999, pp. 208~209).⁶⁾ 효율성을 위한 구분, 코드화는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강제하는 의미를 만들고 비효율성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물질적 효과를 낳게 된다. 주류 경제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주류 소통학은 바로 그런 점에 눈감아 왔다.

이제 화폐와 관련해 주류 경제학적 해석을 넘어서기 위해 소통학이 질문해야 할 내용은 명료해졌다. 소통학은 소통의 과정이 누구를 위한 효율성을 지향해 왔는지, 그 효율성을 위해 어떻게 합의(혹은 동의)를 생산해 왔는지를 물어야 한다. 즉 소통이 중재되는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내 의미가 발생하고 소통되는 역동적 과정, 즉 의미작용(signification)에 천착해야 한다. 이미 명료하고 투명해서 자연스러운 것을 사회적인 것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펼쳐야 한다. 화폐는 어떤 의미를 어떻게 내고 있으며, 화폐로부터 발생한 의미는 어떻게 사회를 떠도는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할 때다.

6) 근대 사회는 ‘인권’과 ‘시민권’을 지켜야 할 주요 가치로 인식해 왔다. ‘인권’ 언설은 인간의 바깥 즉 동물, 식물 등의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배제해 왔다. ‘시민권’은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고 특정 집단의 배타적 이익에만 기여해 왔다. 이처럼 언어적 행위, 작동은 투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비린내 나는 것이거나 구역질날 정도로 정치적인 것이다.

3. 긴장 관계: 가치와 의미작용

소통학은 언어학으로부터 통찰력을 받아들이면서 새 전기를 맞는다. 특히 ‘중재’를 보다 자세히 논의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 경제학, 주류 소통학이 그동안 괄호 친 채 남겨두었던 ‘중재’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사실 ‘중재’ 과정은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아는가’라는 질문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식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와 관련된 것이었다(Lewis, 2002, p. 145). 지식 내용이 아닌 지식 형식 논의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셈이다(Fiske, p. 213). 언어학과 조우하면서 소통학은 언어를 가장 기본적인 미디어 이자 중재 기제라고 보기 시작했다. “말하는자의 의도, 지칭하고자 하는 사물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을 언어라고 파악하려는 방식을 부정해 나갔다(Hall, 1980b, p. 157; 1982, p. 243). 오히려 지식이 투명하다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부정했고, 언어 개입으로 인한 효과를 강조했다. “언어는 연속체인 자연을 분절해 문화 체제로 옮겨 놓음으로써 특정한 의미를 구성”(Hall, 1982, p. 257)하는 존재로 인식했다. 그리고 의미를 구성하는 구조적 형식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했다.⁷⁾

언어학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학이 별인 언어학적 전환(linguistic turn)은 소쉬르 언어학으로의 전환으로 보아도 무방하다.⁸⁾ 소쉬르 언어학은 인간이

7) 문화연구 토대를 마련한 홀은 이와 같은 연구 강조점 전환을 파스너스로 대표되었던 사회학으로부터의 단절(break with sociology)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초기 문화연구에 끼친 구조주의 영향에 대해서는 Hall, 1980a/1996, pp. 161~185을 참조하라.

8) 소쉬르 언어학이 아니라 소쉬르 기호학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사회생활 속에 있는 기호의 삶을 연구하는 과학을 생각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기호학(semiolog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언어학은 이러한 일반 과학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기호학이 발견하게 될 법칙들은 언어학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Saussure, 같은 책, p. 27). 그러나 바르뜨(R. Barthes)는 오히려 기호학이 언어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호론이 언어학적 모델을 빼려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Allen, 2003/2006, pp. 98~99를 참조하였다). 이처럼 기호학인가 언어학인가는 논쟁적 주제이며, 흥미로운 이론적 대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주제다. 하지만 이 논문이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기호든 언어든, 이러한 미디어가 인간의 소통을

설 자리를 지우는 급진성을 보였다. 그의 급진적 지움에 따르면 인간은 개별적 인간 행위를 갖지 못하는 존재다. 개별적 인간 행위는 그를 가능케 해준 구조적 형식의 결과다. 개별적 행위와 구조적 형식 대비는 소쉬르 언어학이 구분한 언어활동 즉 *parole*과 *langue* 대비와 통한다. 랑그는 언어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사회 집단에 의해 채택된 필요한 관습들의 총체다. 그것은 “본질상 사회적이며 개인과는 무관하다”(Saussure, 1916/1990, p. 30). 반면, 파를은 랑그에 비해 ‘부차적이며, 언어활동의 개인적인 면’이다(Saussure, 같은 면). 개별적 인간 행위보다는 구조적 형식에 관심을 두었던 소쉬르가 연구대상으로 랑그를 뽑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소쉬르는 랑그라는 체계를 근간으로, 랑그의 상위체계인 기호 세계로 접근해갔다. 그는 먼저 기호 세계 내 최소 단위인 ‘하나의 기호(a sign)’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된다고 파악했다. 기표와 기의가 연관을 맺을 때 의미작용 (signification)이 발생한다고 보았다.⁹⁾ 그리고 기표와 기의의 연관은 언제나 자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말은 기표가 화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존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 개인에게는 한 언어 집단 속에 일단 정립된 기호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Saussure, p. 87). 소쉬르는 이 같은 의미작용을 설명하면서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려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소쉬르의 의미작용 설명은 의외로 덜 치밀해 보인다. 언어의 사회성 설명을 오히려 다른 개념에서 찾으려했던 것처럼 여겨진다.

‘기표-기의’ 연결은 의미작용으로 칭할 수 있고, 의미작용은 자의성에 기반을 둔다는 설명을 하다가 소쉬르는 돌연 ‘가치’ 논의로 급선회한다. “(기표와 기의의 연결은) 의미작용을 상징화한다. 그러나 최초의 경우 개념은 아무것도

매개하여 특정한 소통의 형식을 만든다”는 점이다. 이에 기호학, 언어학 간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은 채 맥락에 따라 이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9) 역서에는 *signification*을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 이 같은 번역은 기표와 기의 간 연결이 갖는 동적 뉘앙스를 포착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역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뒤에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소쉬르가 의미작용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작용을 홀대한 탓에 소쉬르는 이후 그의 이론 체계 내에 중대한 결점을 노정하게 된다.

아니며(nothing), 이는 오직 다른 유사한 가치들과의 관련 속에서 결정된 가치 일 뿐이다. 가치들이 없으면 의미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Saussure, p. 140).¹⁰⁾ 이 설명에 따르면 의미작용에 앞서 가치가 발생한다. 그리고 가치는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경제학과 주류 소통학이 가정했던 바와는 달리 기호는 스스로 실증적 내용을 가지지 않는다. 기호는 다른 기호와의 차별성 때문에 그 가치 (의미)가 드러난다. 기호는 오직 다른 기호와 차이 남으로써 혹은 다른 기호가 아님으로써 부정적으로(negatively) 자신을 드러낸다. 즉 이러한 부정적 관계 (~이 아님)가 '체계로부터 발산되는 가치'(Saussure, 같은 쪽)다.¹¹⁾ 체계가 구축된 이후에야 기표는 기표로서, 기의는 기의로서 그 '관계 속의 정체성' (Chandler, 2002/2006, p. 62)을 부여받고, 이를 통해 개별적인 의미작용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 소쉬르의 주장이다.

소쉬르는 의미작용과 가치의 관계를 여러 예를 통해 보여준다. 그중 하나가 화폐 기호다. "동전 한닢(a piece of money)의 가치를 고정시켜주는 것은 금속이 아니다. … 가치는 물질적 실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 의해 구성된다"(Saussure, p. 141).¹²⁾ 그러므로 5프랑의 가치는 동전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금속 함유량이 아니라, 동전이 교환되는 체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 가령 5프랑의 동전이 빵과 교환된다고 하자. 5프랑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1프랑의 동전은 무엇과 교환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Saussure, pp. 137~138). "이렇게 정해진 가치 개념에서 보면, 하나의 항(기호)의 특정 소리(기표)와 특정 개념(기의)의 결합(의미작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정의한다면, 항(기호)을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체계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되는데, 오히려 그와 반대로, 서로 의존적인 전체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로부터 여기에 포함된 요소들(기호들, 의미작용들)을 분석을 통해 얻어내야 하는 것

10) 번역 수정. 괄호 안의 삽입문은 인용자 첨가. 이후 나오는 모든 번역 수정문은 해당 인용문의 영문판을 참조하여 인용자가 수정한 것임.

11) 번역 수정.

12) 번역 수정.

이다”(Saussure, p. 136).¹³⁾ 그 결과 “가치와 단위를 만드는 것이 차이인 것처럼, (언어와 기호의) 특성을 만드는 것도 바로 차이다”(Saussure, p. 144).¹⁴⁾

소쉬르는 가치 뒤에 의미작용을 갖다 놓아 의미작용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처럼 파악하고 있다. 과연 이 같은 이해 방식은 적절한 것일까. 앞에서 언급했던 주류 소통학의 부 적절성 논의를 다시 떠올려보자. 소통학이 주류 경제학의 전제 즉 ‘실체로서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중재의 문제를 빈 칸으로 남겼다고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소쉬르 또한, 경제학적 전제에 입각해 있기도 했다. “언어학도 정치경제와 마찬가지로 가치 개념에 직면해 있다. 이 두 과학 모두 상이한 질서에 속하는 사물들을 같은 체계, 즉 경제학에 있어서는 노동과 임금, 언어학에 있어서는 기의와 기표를 다룬다”(Saussure, pp. 98~99).¹⁵⁾ 소쉬르가 이 인용에서 이해한 가치 개념은 주류 경제학이 전제했던 가치 개념과는 정반대 지점에 있다. 개별 인간의 의지, 개별 기호의 의미작용과는 무관한 차이, 즉 ‘체계로부터 발산하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쉬르의 언어학은 역설적이게도 주류 경제학과 상동적(相同的)인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 ‘실체적 가치’는 ‘차이로서의 가치’로 바뀌었지만, 체계의 렌즈를 통한다면 가치는 분석자에 의해 투명하게 파악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류 경제학과 소쉬르의 언어학은 상동적이다. 이를 통해 주류 경제학은 가치들의 원활한 흐름을 중시하는 유기체주의로, 소쉬르의 언어학은 체계 내 가치 배치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주의로 나아간다. 유기체주의 주류 경제학이 유기체의 생존의 문제를 의심하지 않듯, 구조주의 역시 체계의 오작동의 문제를 의심하지 않는다. 가령, 노동과 임금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주류 경제학은 임금을 노동의 실체를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해할 것이다. 소쉬르에게 있어 임금과 노동은 다른 임금과 노동과의 차이 체계에 의해 그 가치가 할당된다. 이 둘 모두에서 노동과 임금 간 적대적 관계는 팔호가 쳐져 있다. 하지만 실제 자본주의 세상은 그와는 다르게

13) 번역 수정. 팔호 안 삽입문은 인용자 첨가.

14) 팔호 안 삽입문은 인용자 첨가.

15) 번역 수정. 강조는 원문.

전개되어 왔다. 어떠한 노동에 어떠한 임금을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본주의 유기체 전체, 그리고 노동 체계와 임금 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긴장을 제공해 왔다. 노동과 임금의 적대적 관계를 중재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과정이었다. 그런데 주류 경제학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회성을 강조해 온 기호학도 그 중재 과정을 외면했다. 언어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한 소쉬르가, 정작 언어학에서 사회성이 가장 절실한 시점에서 사회성을 박탈한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에 직면한다(Eagleton, 1996/2001, p. 225).

노동과 임금 관계에서 유추 가능하듯, 어떠한 기표에 어떠한 기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 즉 의미작용의 문제는 때로는 체계 전체를 위협하는 긴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쉬르의 기호학에서는 체계의 중재뿐만이 아니라 의미작용의 중재까지도 동시에 고려했어야 했다. 의미작용에 앞서 가치를 할당하기보다는, 가치와 의미작용을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했어야 옳다. 기표와 기의 간 기호 내적 동학으로 의미작용이 발생하는 동시에 기호와 기호 간 외적 동학(차이)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어야 했다. 내, 외적 동학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기호는 소통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기호의 개별적 의미작용은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구조적으로 작동함을 밝힌 것이 소쉬르의 가장 큰 기여다. 하지만 차이의 체계를 지나치게 특권화함으로써 각각의 의미작용이 체계를 혼들어 위기를 자아낸다는 사실에 눈을 감는 허점을 드러냈다. 물론 순수한 차이에 의해 조직된 체계처럼 의미작용 역시 본질적으로 차이 나는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결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어체계에서 기표와 그것이 채택한 기의의 일치는 다른 것을 배제하고 차별한 결과다. 투명한 차이로만 중재 과정이 설명되진 않는다. 인간의 사회적 실천들이 그 안에 경합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의미작용은 차이 체계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 안에는 인간의 사회적 실천도 작동하고 있다. 기존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며, 다른 체계를 생성시킬 수도 있는 잠재력이 개별적 의미작용 속에 숨겨져 있다. 투명한 차이 체계는 개별 의미작용을 지우면서 우위에 서지만 그 결과 체계의 보수성이 확립될 뿐이다. 반면 의미작용은 자의적 의미작용과 그 보편화에 의심의 눈길을 던짐으로써 역동

적인 정치적 힘을 지니게 된다.

4. 가치 형태론의 기호학

의미작용으로부터 가치 체계를 유추하면 가치와 의미작용 간 관계는 달리 정리할 수도 있다. 소쉬르는 가시적인 개별 기호들로 비가시적인 사회적 체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늘 회의를 표했다. 이 같은 회의는 주류 경제학과 주류 소통학이 지나치게 공리주의적 행태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우리의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소쉬르에 동의하면서도 전적인 동의로까지 이어갈 수 없는 부분은 ‘기호가 전적으로 체계 이후에야 성립된다’는 그의 주장이다. 소쉬르의 생각과는 달리 체계로부터 발산하는 가치는 실상은 의미작용 이후에야 생긴 것 아닐까. 소쉬르의 논의에 따르면 체계는 단박에 생겨 미리 기호에 가치를 부여한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체계가 차이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개(이상)의 기호를 먼저 가져야 한다. 최초의 기호는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기호이지만, 동시에 최초 기호는 언제나 혼자라는 점에서 체계 해체의 증거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호는 양면적이다. 사후적으로 체계로부터 발산되는 가치를 할당받는 수동체이기도 하지만, 체계를 해체 할 잠재적 힘을 가진 능동적 해체 인자이기도 하다.

마르크스가 체계를 사유하는 방식은 소쉬르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상품의 방대한 집적으로 나타나며, 개개의 상품은 이러한 부의 기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Marx, 1867/2002, p. 43). 마르크스는 상품을 할당하는 자본주의적 체계를 먼저 사유하는 쪽보다는 상품 형태를 먼저 사유하는 쪽을 택한다. 그런 다음 자본주의 체계 전체를 고민하려 한다. 그렇다고 마르크스가 주류 경제학처럼 상품의 행태적 측면을 먼저 고려하고 추적한 것은 아니다. 「자본론」의 방법론을 설명하는 한 곳에서 마르크스는 “요컨대 각 범주들을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규정적인 범주들이었던 순서에 따라

위치 지우는 것은 실행할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그것들의 서열은 … 자연적인 서열로 현상하거나, 역사적 발전의 서열에 조응하는 것과는 정확히 반대인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말한다(Marx, 1857/2002, p. 79). 얼핏 직관적으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 실재적인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것”(Marx, 1857/2002, p. 70)이 자명해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사태가 그렇게 된 결과에 다름 아니다(Marx, 1857/2002, p. 71). 구체적인 것은 그것이 수많은 관계의 총체이기 때문에 구체적이다. 그러므로 그 같은 관계를 사유하기 위해 서는 추상에서 구체로, 단순에서 복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다(Marx, 1857/2002, pp. 70~80). 마르크스가 보기엔 상품 형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복잡한 관계를 사유하기 위한 가장 추상적이면서도 가장 단순한 개념적 범주다. 만약 우리가 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자본주의 관계의 총체적 체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읽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단위인 상품 ‘읽기’였다 (Jhally, 1987/1996, p. 53).

마르크스의 가치형태론 즉 상품 읽기를 소쉬르의 언어학적 개념으로 재구성해 보자. 마르크스는 상품 분석을 시작하면서 상품 형태는 두 개의 가치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그것이다. 사용가치는 오직 사용 또는 소비에서만 실현된다. 그것이 최종으로 실현되는 장소는 개인이다. 그에 비해 교환 가치는 양적 관계 즉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가치와 사회적으로 교환되는 비율로 나타나는 가치다(Marx, 1867/2002, pp. 44~45). 이때 교환 가치는 소쉬르가 가치라 부른 것과 짹을 이를 수 있다. “가치로서 상품의 객관적 성격은 순전히 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가치는 오직 상품과 상품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Marx, 1867/2002, p. 60). 관계적 차원, 즉 상품과 상품 사이에서 상품의 (교환) 가치가 드러난다. 한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편 소쉬르의 파롤은 마르크스의 사용가치와 짹을 이를 수 있다. 소쉬르는 “실행(execution)은 언제나 개별적이며 개인이 바로 그 실행의 주인이다”(Saussure, p. 24)¹⁶⁾라고 말하며 이를 파롤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 파롤처럼

사용가치는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며 이는 사용하는 개별 인간에게 귀속된다.

랑그와 피를 구분한 후 소쉬르가 랑그 체계에만 천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소쉬르와는 달리 ‘단순한, 개별적인 또는 우연적인 가치형태’ 등을 살피는 작업을 편다. 소쉬르 언어학에서 의미작용이라는 교환 가능한 물리적 기표를 통해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기의를 구체화, 가시화하는 과정이다. 이는 가치를 생산하는 체계 과정과는 비교된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 소쉬르의 의미작용에 비유될 수 있는 — 4가지의 가치형태(단순한 가치형태, 전개된 가치형태, 일반적 가치형태, 화폐형태)를 소개한다. 먼저 ‘단순한 가치형태’는 개별적 사용가치들을 교환 가능한 교환가치로 바꾸는 과정이다. ‘단순한 가치형태’는 다음과 같은 정식으로 표현된다.

‘ x 량의 상품 A = y 량의 상품 B 또는

x 량의 상품 A는 y 량의 상품 B와 가치가 같다’(Marx, 1867/2002, p. 61).

이와 같은 두 개의 사용가치가 마주침은 개별적이며 우연적이다. 이 개별적인 과정 속에서 한 상품(x 량의 상품 A혹은 제1상품)은 다른 상품(Y량의 상품 B 혹은 제2상품)에 의해서만 표현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개별적 마주침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상품 A가 동일한 상품 A와 교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제1상품을 제2상품에 의해 표현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가치형태, 제2상품은 제1상품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등가 형태로 부른다. 그렇다면 소쉬르의 기의는 마르크스에서 상대적 가치형태가 되고, 기표는 등가 형태가 될 것이다. 이들의 우연적·자의적 결합으로 발생한 가치형태가 언어학의 기호이다(고진, 1990/2001, 36쪽; 2001/2005, 335쪽; 아키라, 1984/1999, 144~145쪽, 홍성일, 2003, 14쪽). ‘단순한 가치형태’는 가장 원초적인 의미작용인 셈이다.

상대적 가치형태에서는 상품 A가 상품 B에 의해서만 표현되지는 않는다.

무수히 많은 등가형태, 즉 기표가 상대적 가치형태인 기의를 대신하여 의미작용들을 수행한다. 단순한 가치형태의 우변에는 수많은 등가 형태가 자리 잡는다. 마르크스는 이를 ‘전개된 가치형태’라 불렀다. “어떤 하나의 상품(예컨대 아마포)의 가치는 이제 상품세계의 무수한 다른 상품들로 표현된다. 다른 상품체는 어느 것이나 아마포 가치의 거울이 된다”(Marx, 1867/2002, p. 80).¹⁷⁾ ‘전개된 가치 형태’는

z 량의 상품 A = u 량의 상품 B, 또는

z 량의 상품 A = v 량의 상품 C, 또는

z 량의 상품 A = w 량의 상품 D

로 정식화할 수 있다. 전개된 가치형태는 “조각조각 끊어진 잡다한 가치표현의 다채로운 모자이크를 이룬다”(Marx, 1867/2002, p. 82). 상대적 가치형태는 논리적으로 무제한적인 등가형태와 관계적 잠재성을 갖는다. 등가 형태 역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상대적 가치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약한 고리’가 존재한다. 다른 의미작용, 가치형태와 비교해 동기화(motivation)가 약한 가치형태, 혹은 기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Saussure, p. 155).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개된 가치형태’에서 이 모든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약한 고리까지 포함하는 등가형태들의 전체가 상대적 가치형태의 큰 그림을 그려낸다. 이런 측면에서 모자이크는 단지 비유적 표현이라고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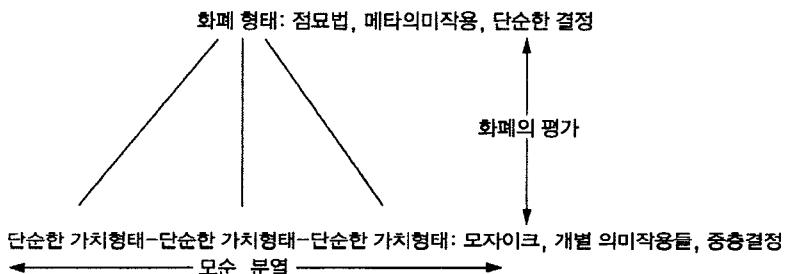
17) 팔호 안 삽입문은 역자 첨가.

18) 역서에는 motivation을 유연적(有緣的)으로 번역하였지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인 ‘동기화’로 표기하고자 한다. 기호학에서는 동기화를 기표와 기의 간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관계의 정도를 의미한다. 개의 사진은 고도로 동기화된 기호이지만 ‘dog’라는 기호는 고도로 비동기화된 기호다. 도상기호는 관습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반면, 상징기호는 관습 없이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동기와 관습은 반비례한다. 상품교환에서도 쌀과 찹쌀의 교환은 동기화가 높은 관계에 있지만, 쌀과 그림은 동기화가 혼자히 떨어지는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이들이 교환될 수 있는 것은 찹쌀과 그림 그리고 다른 상품(등가형태) 간의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할 수 없다. 이는 전적으로 무수히 많은 등가형태에 의한 ‘중층결정’(Althusser, 1965/2002, pp. 247~248)이기 때문이다. 개별 등가형태가 자신의 특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등가형태의 매개가 상대적 가치형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변의 단일한 등가물이 다른 모든 상대적 가치형태를 대신하는 ‘일반적 가치형태’, 그리고 이 단일한 등가물이 화폐로 고착화되는 ‘화폐 형태’는 앞서의 ‘단순한 가치형태’와 ‘전개된 가치형태’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을 연출한다. 절대적 등가물과 화폐는 자신을 상대적 가치형태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을 때 특권적 지위를 점할 수 있다(Marx, 1867/2002, pp. 88~89). 이로부터 소쉬르가 가치라고 말한 차이의 체계 즉, 기호를 분석할 수 있는 서로 의존적인 전체가 성립된다. 모든 개별 가치형태는 화폐의 도움을 빌려, 화폐의 차이를 통해서만 대표된다. 화폐는 어떠한 개별적 의미작용에도 관계없이 화폐의 수량적 차이를 통해 개별 상품을 보편적으로 대표한다. 이전 까지 능동적 주어의 위치에 있던 상대적 가치형태는 화폐 형태의 수동적 술어로 바뀐다(이진경, 2005, 74~75쪽). 그 결과, 기표는 기의로부터 분리되며, 개별적인 기의로부터 독립된 특권적 기표가 그 익명성과 이동성을 발휘해 모든 기호에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한다(Wennerlind, 2001, p. 567).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모자이크는 점묘법으로 대체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적 의미작용들이 중층 결정되어 하나의 그림을 그렸던 것에 반해, 이제는 무수히 많은 동질적 점들이 하나의 전체 — 차이의 체계 — 를 그리게 된다. 모자이크의 아날로그적 분열증은 점묘법의 디지털적 편집증으로 바뀐다. 만일 여기에 도 의미작용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모든 기의를 화폐로 바꾸어야 한다는 메타 의미작용(meta-signification)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에서 단일결정(simple determination)으로의 이동은 모든 약한 고리가 배제되며 이루어진 연대기적 전후(前後)관계로 파악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두 개의 다른 형식이 공시적으로 간섭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화폐는 동질적이고 수량적 차이로 환원되지만, 이 환원에 의해 표현되는 상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적 모순과 분열로

<그림 1> 개별 의미작용과 메타 의미작용의 관계¹⁹⁾

가득 차 있다(안현효, 1996, 88쪽). 예컨대 연인들이 주고받은 선물은 결코 화폐로 변형되지 않는다. 비록 화폐를 통해 구입했을지라도 이 상품은 연인들 간의 사랑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개별적 의미작용을 수행한다. 이처럼 체계의 메타 의미작용은 개별 의미작용들('단순한 가치형태'와 '전개된 가치형태')에 의해 계속적으로 의심을 받는다. 소쉬르가 차이의 체계를 조직하고 이로부터 기호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에 만족하며 그쳤다면, 마르크스는 보다 입체적으로 차이의 체계뿐만 아니라 차이의 체계는 또한 어떻게 해서 의도치 못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5. 보나파르티즘의 기호학: 억압된 자의 회귀

앞 절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가치형태론을 기호학적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이를 통해 두 개의 의미작용을 구분해낼 수 있었다. 하나는 소쉬르가 발견했지만, 그 중요성은 마르크스를 재해석하며 더욱 명료해졌던 개별적 의미

19) 피스크와 하틀리(Fiske & Hartley, 2003, p. 116)의 그림에서 큰 시사점을 빌었다.

작용이다. 이는 상품이 다른 상품과 마주할 때 매 순간 새롭게 생성되는 의미 작용이다. 다른 하나는 소쉬르가 ‘가치는 차이다’라고 정식화했던 메타 의미작용이다. 이는 화폐가 상품의 개별적 기의를 탈락시키며 모든 기의를 대표하는 유일자이자 주인 기표가 되는 과정이다. 개별적 의미작용과 메타 의미작용은 조화롭게 공존해 오지 않았다. 메타 의미작용은 화폐 축적 욕망으로 나아갔다. 절대적 부를 향한 욕망은 종결되지 않는 동질적 차이의 유희로 인해 끝없이 지연되며 강화되었다. “사회 안에서 교환자들 자신의 운동은 그들에게는 물건들의 운동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들은 이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운동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Marx, 1867/2002, p. 96). 체계에 의존하지 않는 개별 의미작용은 아무런 존재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어떻게 이 두 의미작용 각각의 고유성을 견지하면서도 이들을 관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이다. 마르크스가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은 결코 무(nothing)로 환원되지 않는 개별적 의미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니었던가.

마르크스의『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Marx, 1852/2004)은 가치 형태론이 제기한 두 가지 의미작용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²⁰⁾ 프랑스 역사의 파국 국면에서 마르크스는 개별적 의미작용들의 모순적 분열을 목격했다. 왕조파, 오를레앙파, 공화주의자, 산악파, 보나파르트파는 각기 토지 부르주아지, 금융 부르주아지, 산업 부르주아지, 프티 부르주아와 도시 노동자, 분할지 농민과 루펜 노동자를 대표(대의)하고 있었다. 대표되는 것과 대표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다른 이름이다. 기표와 기의 간 관계가 그렇듯이

20) 일반적으로 「자본론」은 마르크스의 경제 저작으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은 정치 저작으로 평가한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국가론을 전개시킨 폴란차스의 저작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Poulantzas, 1973/1996, pp. 307 ~ 312를 보라). 그러나 이렇게 마르크스의 저작을 경제와 정치의 한계 속으로 미리 기두는 일은 고전이 갖는 창의적 잠재성을 애초부터 박제화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본론」과 언어학의 접합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 을 사유할 수 있었는데,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과 언어학의 접합을 통해서도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대표되는 것과 대표하는 것 간 관계는 자의적이며 우연적이다. 본질적인 관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서로 합종연횡 하는 일이 가능했다(고진, 2001/2005, 256쪽). 이 와중에 “부르주아 개개인은 자기 계급이 다른 계급들과 나란히 매한가지의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 빠져 있어야만 다른 계급들을 계속 착취할 수 있고 소유와 가족과 종교와 질서를 별 탈 없이 계속 만끽할 수 있다는 것”(Marx, 1852/2004, p. 332)을 확인한다. 화폐처럼, 개별적 의미작용의 질적 모순과 분열을 지워버릴 때만이 체계의 패권을 쟁취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당파 중에서는 보나파르트파만이 가장 완벽하게 기의를 없앱으로써 대권을 잡을 수 있었다(고진, 1990/2001, 93쪽). “그(보나파르트)가 지금처럼 벼젓한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그가 이 중간 계급의 정치적 권력을 파괴했기 때문이고 또 매일 새로이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Marx, 1852/2004, p. 389).²¹⁾ 화폐가 개별 의미작용을 은폐해 차이의 체계를 작동함으로써 모든 개별 상품을 대표할 수 있듯, 보나파르트 역시도 자신의 특수한 대표성을 부정함으로써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애초 소작농을 대표한다는 의미작용 역시 자의적인 것이었다. “분할지 농민들 사이에 단순한 지역적 연계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이해의 동일성이 그들 사이에 어떠한 공통성, 어떠한 국민적 결합, 어떠한 정치 조직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한에서, 그들은 계급을 이루고 있지 않다… 그들 스스로를 대표(represent)할 수는 없다. 그들은 대표되어야 한다”(Marx, 1852/2004, p. 383).

기표의 ‘무제한적 통치 권리’(Marx, 1852/2004, p. 383)은 화폐가 그렇듯, 기의로부터 분리된 기표의 자유로운 이동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에드가 일렌 포(E. A. Poe)의 ‘도난당한 편지’에 대해 라캉(Lacan, 1956/1990)이 펼친 독해는 보나파르티즘 대두를 설명할 탁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라캉이 주목한 것은 의미작용으로부터 분리된 기표의 지위였다.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편지 그 자체에 주목했다. 익명의 정부(情夫)로부터 여왕에게 온 편지의 내용이 문제였다면, 편지를 훔친 장관은 자신의 직무에 맞게 불륜에 대한 사법적

21) 팔호 안 삽입문은 인용자 첨가.

절치를 강구하거나 편지 발신인을 추적해 나갔어야 했다. 혹은 여왕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관은 편지를 훔쳐 소유하는 것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편지 소유를 통해 오랜 기간 여왕을 모욕하고 불안에 떨게 했다. “그러므로 이 상황으로부터 장관이 얻은 우월성은 편지의 작동(function)이 아니라, 그가 알건 알지 못했던 간에, 편지가 그에게 구성한 역할의 작동인 것이다”(Lacan, p. 124).²²⁾ 이후 편지는 장관에서 탐정으로 그리고 탐정에서 경감으로, 경감에서 여왕으로 옮겨지며 편지를 소유한 주체의 우월성을 작동 시킨다. 그러나 여전히 편지 내용은 밝혀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편지(the letter)이자 글자(a letter)이며, 기의 없는 기표일 뿐이었다. 편지가 옮겨지는 과정 속(displacement)에서 의미작용은 와해된다. 그리고 편지는 ‘순수 기표’로서 권력을 실재화 한다(Lacan, pp. 113, 123~124). 소쉬르가 제기한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연계에서 더 나아가, 기표가 기의를 압도하는 체계를 라캉은 보여주고 있다(권택영, 1990, 31쪽; 도정일, 1993, 115쪽). 마치 화폐가 모든 개별 상품의 의미작용을 무력화하며 상품의 왕이 되듯, 또한 보나파르트가 모든 당파성을 거세하여 프랑스 왕으로 등극하듯, 그리고 편지가 의미작용을 지연시키며 개별 주체들의 관계를 결정하듯, 기표는 기의로부터 분리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호들의 재배치를 작동시킬 수 있게 된다.

라캉은 화폐를 ‘모든 의미작용에 대해 가장 파괴적인 기표’로 꼽았다 (Lacan, p. 129)²³⁾. 도난당한 편지를 찾아내 이를 여왕에게 되돌려준 탐정조차도 대가로 받은 화폐로 인해 더욱 파괴적인 기표의 연쇄 속으로 들어온다. 이미 탐정은 바꿔치기한 편지를 대신해 장관에게 모욕의 글을 남기며 자신의 우월적 위치를 얻어낸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기표가 더 이상의 의미작용을 갖지 않을 때, 기표에는 무엇이 남게 되는가” (Lacan, p. 131).²⁴⁾ 장관에 대한 탐정의 병리적 기행(奇行) 속에서 라캉은 기표에 종속되는 맹목적 주체를 제시한다. 기표는 기의와 분리되면서 주체의 ‘감

22) 번역 수정.

23) 번역 수정.

24) 번역 수정.

정 폭발'(Lacan, p. 129)을 이끌어낸다. 여왕도 그러했고 장관도 그랬다. 여왕은 내밀한 사랑을, 장관은 여왕에 대한 모멸을, 그리고 탐정은 예전에 당했던 일에 대한 복수의 분노를 편지에 일치시킨다. 의미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표는 감정적이기에 상상적일 수밖에 없는, 주체의 허구적 동일화를 가능케 했다. 이미 물신주의 개념을 동원해 화폐에 대한 병리적 집착을 설명했던 (Jahllly, p. 69) 마르크스는 보나파르티즘을 통해 그 집착을 구체적으로 그려 냈다. 보나파르티즘은 '기적 신앙'(Marx, 1852/2004, p. 383)에 가까웠다. 분할지 농민은 '도난당한 편지'의 주인공들처럼 기의 없는 기표(즉 보나파르티즘)에 맹목적이고 상상적이며 허구적인 동일시를 수행하였다. 편지에 대한 집착, 화폐에 대한 맹목, 보나파르티즘에 대한 환호는 모두 기의 없는 기표가 주체들에게 신비적으로 강요해 생긴 결과들이었다. 주체가 자신의 의미작용을 포기하면서 스스로의 죽음을 선고하고, 기표에 자신을 내맡긴 결과였다. "모든 의미작용 위에서, 그리고 모든 의미작용을 넘어선 곳에 기표의 대답이 흐른다. … 너의 현 존재를 먹어라(Eat your Dasein)"(Lacan, pp. 132~133).²⁵⁾ "오직 하나뿐인 것은 더 이상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된다"(김경용, 1994, 33쪽).

개별 주체, 개별 기호의 의미작용을 먹어치운 기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대표한다. 반복하자면, 화폐는 '모든 의미작용에 대해 가장 파괴적 기표'다. 하지만 먹어치우고, 파괴하는 것으로 사태는 종식된 것은 아니었다. 스피박(Spivak, 1988)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다. 마르크스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은 보나파르티즘의 대두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오히려 보나파르티즘으로 대표되지 않는 '흩어지고 이탈된(dislocated)' 분할지 농민의 존재에 더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를 대표할 수 없기에 보나파르티즘 기표에 상상적 동일시를 꾀하고 환호했다. 여기서 가정적 질문이 가능해진다: '만일 보나파르티즘이 아니었다면?' 분할지 농민들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 자신들의 이해, 자신들의 교양을

25) 번역 수정.

다른 계급들과 그것들과 분리시키고 적대적으로 대립하게 만드는 경제적 생존 조건 밑에서 생활하는 한에서, 그들이 하나의 계급을 형성'(Marx, 1852/2004, pp. 382~383)²⁶⁾하는 그런 순간을 맞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순간 그들은 보나파르티즘을 대체해 자신들을 스스로 대표할 수 있었을까.

만일 그것이 경제적 이해만의 문제라면 스피박은 '그렇다'고 말한다. 화폐(기호)는 모든 것을 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만들고 수량적으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상품을 대표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화폐가 무엇을 대표한다함은 실상은 '누군가를 위해 말하는(speaking for) 대표(representation)'가 아니다. 스피박은 오히려 그것이 '다시 보여줌(re-presence)'이라는 의미의 묘사(re-presentation)임을 분명히 한다(Spivak, p. 278). 스피박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대표(Vertretung)와 묘사(Darstellung)를 염밀히 구분하며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용어는 영어권에서 공히 재현(representation)으로 번역되었다. 그로 인해 둘 간의 미묘한 차이는 사라졌다고 한다. "경제적 맥락에서의 재현/대표(representation)는 묘사(Darstellung)로서, 이는 간접적 방식으로 분리된 주체(divided subject)와 연관되는 무대화(staging) 혹은 그러한 의미작용으로서의 재현/대표라는 철학적 개념이다"(Spivak, p. 278).²⁷⁾ 이는 우리가 화폐 형태에서 도출하였던 메타 의미작용에 다름 아니다. 메타 의미작용은 모든 차이를 없앴기 때문에 무엇이든 묘사할 수 있었다. 반면

26) 번역 수정.

27) 이와 같은 스피박의 주장은 「자본론」의 다음 문장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B. Fowkes의 1977년 판 역서의 p. 128을 스피박이 독일어판과 대조하며 다시 번역한 것이다 "in the exchange relationship of commodities their exchange-value appeared to us totally independent of their use-value. But if we subtract their use-value from the product of labour, we obtain their value, as it was just determined[bestimmt]. The common element which represents itself[sich darstellt] in the exchange relation, or the exchange value of the commodity, is thus its value." 한국어판의 해당 부분은 Marx(1867/2001)의 47~48쪽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상품들이 교환될 때 그들의 교환가치는 사용가치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보았다. 만약 우리가 상품의 사용가치를 무시해버린다면, 남는 것은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상품의 가치뿐이다. 따라서 상품의 교환관계 또는 교환가치에서 나타나는 공통 인자는 바로 상품의 가치이다."

개별 의미작용은 달랐다. 우리가 ‘단순한 가치형태’와 ‘전개된 가치형태’에서 본 것은 중층결정의 모자이크로박에 파악할 수밖에 없는 질적 모순과 분열이었다. 스피박의 용법에 따른다면, 화폐는 상품을 묘사할 수 있어도 대표할 수 없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역시 그와 같은 심연을 다룬다. “요점은 마르크스가 욕망과 이해(interest)가 동시에 일어나는 분리되지 않은 주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경제적 영역(자본가)과 정치적인 것(세계·역사적 행위자)에서 둘 다, 마르크스는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간에 연속적이지도, 응집적이지도 않은 분리되고 이탈된(dislocated) 주체의 모델을 구성해야만 했다”(Spivak, p. 276). 메타 의미 작용과 떨어져 개별적인 의미작용들을 하는 존재들이 있으니, 이들이 바로 분할지 농민들이었다. 주인 기표—보나파르트—로 경제적 이해를 동일화할 수 있어도, 이들은 결코 하나의 이름으로 대표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Vertretung, 즉 대표의 사건이 … 마치 Darstellung(혹은 비유로서의 수사)처럼 행동한다”(Spivak, p. 277). 보나파르티즘 속에는, 그리고 모든 기표의 ‘무제한적 통치 권력’ 속에는, 바로 이러한 대표와 묘사의 공모적 관계가 존재한다. 그 와중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의미작용의 다양성은 화폐라는 기표의 은어로 대체되어 부자연스러운 지배의 과정을 일반적이고 투명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Wennerlind, p. 568). 의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대표와 묘사의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주인 기표의 체계 바깥에 존재하는 개별적 의미작용의 다양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자본론』으로 되돌아와 보나파르티즘의 혼적을 찾아보자. 마르크스가 ‘목숨을 건 도약’(Marx, 1867/2001, p. 136)이라며 압축적이면서도 비장하게 제시한 구절은 개별적 의미작용들과 메타 의미작용, 대표와 묘사의 간극에 관한 것이다. 개별적으로 보였던 두 의미작용은 ‘목숨을 건 도약’을 통해 관련을 맺게 된다. 기호의 개별적 의미작용이 거세되어야만, 그리고 그의 현 존재가 잡혀 먹혀야만, 그리하여 묘사가 대표를 대체해야만 메타 의미작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이후에야 기호는 체계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정체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새 생명은 자신의 실재적 조건으로부터 독립되었기에 주인 기표와의 상상적 동일시를 피할 수 있다. 특히나 ‘가장 파괴적인 기표’인 화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묘사할 수 있는 주인기표임을 내세운다. 그리하여 상품은 화폐로 팔리지 않으면 그 개별 사용가치와 상관없이 상품 세계에서 비존재가 된다(Marx, 1867/2001, pp. 136~138).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는 또 한 화폐의 체계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표될 수 없던, 흩어지고 이탈된 존재 즉 목숨을 걸었지만 도약에 실패한 존재는 여전히 실재한다. 체계가 강화될수록 이들의 특이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보나 파르트로의 상상적 동일화 이후에 찾아온 무정부 상태가 그와 같다. 또한 상상적 동일시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체계의 잠재적 위협요소가 된다. 편지에 맹목적이었던 장관, 여왕, 탐정의 병리적 기행, 집착은 주인 기표의 등극이 곧 체계의 영속을 보증하지 않음을 알려준다. 실제로 우리는 맹목적인 화폐 축적이 가져온 실물경제의 와해를 외환위기를 통해 뼈저리게 실감한 바 있다. 의미작용으로부터 분리된 화폐는 ‘미친 돈’(Strange, 1998/2000)으로 폭주하였다. 이 와중에 개별적 의미작용은 의도 하건 의도치 않았건 자신의 고통스런 혼존을 드러내며 주인기표의 신비화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다.

6. 나가며

화폐의 의미작용이란 결국, 모든 개별 의미작용의 특수성을 화폐의 가격으로 대표화시키는 메타 의미작용이다. 화폐는 그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 수단이 아니다. 사람들이 맹목적이랄 정도로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화폐의 메타 의미작용 언급 없이는 해명해낼 수 없다. 하지만 메타 의미작용 논의가 화폐 읽기의 최종본이거나 마침표는 아니다. 오히려 화폐의 메타 의미작용은 더 많은 ‘읽을거리’와 ‘논의거리’를 불러내는 시작일 뿐이다. 인간 주체가 화폐와 상상적 동일시를 행하는 것은 화폐 자체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잘리

(1996/1987)가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광고 등과 같은 소통형태가 이 같은 메타 의미작용의 촉매제로 나서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광고는 기의 없는 기표에 유사 의미작용을 부여함으로써, 메타 의미작용의 신비화를 가능케 한다. 비단 광고뿐이겠는가. 현대의 대중매체는 화폐의 메타 의미작용을 일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Dodd, 1994/2002, pp. 221~222). 이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더 이뤄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체계의 메타 의미작용을 거스르고 해체하는 일들도 역시 화폐 읽기를 통해 답해져야 한다. 화폐 속에 내재된 대표와 묘사의 공모 관계는 개별 의미작용의 미세한 흔적을 남겨 놓는다. 일례로 일상에서 행해지는 기부, 증여, 선물 교환에는 이윤 축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별 의미작용의 흔적이 남아 있다. 마치 구어가 끊임없이 표준어를 변용, 전유하여 개인화된 언어로 발화되듯, 화폐의 사용 역시도 체계의 논리 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대중매체의 탈신화적 잠재성도 포기할 수 없다. 사채업자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쩐의 전쟁>의 대중적 인기는 메타 의미작용 속에 남아 있는 개별적 의미작용의 흔적에 대한 대중적 항수의 발현 아니었을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모사(copy)를 통해 이데아를 다시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스피박이 말한 묘사로서의 재현(re-presentation)과 관련된 철학이다. 그러나 들뢰즈의 플라톤 재해석에 따르면, 플라톤은 역설적이게도 최초의 반 플라톤주의자가 된다. 『스피스테스』에서 플라톤은 소피스트를 몰아내기 위해 다양한 이데아와 모사의 관계를 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사의하게도 소피스트들은 살아남아 존재했다. 이데아와 어떠한 관련성도 없기 때문에 실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되지 않는 존재로 남기 때문이다. “시뮬라크르들은 그릇된 지원자들로서 비유사성 위에 존립하고 있으며, 일종의 타락, 샛길을 힘축한다. … 이들(시뮬라크르들)은 공격, 끼어듦, 전복을 통해, 아버지에게 반항해서, 그리고 형상을 통하지 않고 지원하는 존재들이다”(Deleuze, 1969/2000, pp. 409~410). 시뮬라크르는 체계의 메타 의미작용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즉자적으로 자신의 실존을 알리는 존재들이다. 화폐의 의미작용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었다. 『자본론』의 ‘단순한 가치형태’, 보나파르

터쯤 속 ‘전위되고 흩어진 주체들’이 그와 같은 시뮬라크르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대체로 이들은 사회적 약자였다. IMF 통치 경제 이후 가속화된 일상의 경제화는 대리와 대표의 공모 속에서, 대표될 수 없는 자들의 비루한 처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일상과 경제를 넘나드는 화폐는 이 모든 공모의 신화를 매큐하게 마감하는 중이다. 대표의 문제를 대리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화폐가 사회적 소통의 주된 미디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입과 대안적 실천이 시급히 요구된다. 더불어 화폐를 소유한 이들의 ‘감정 폭발’ 또한 보다 빈번해지고 있다. 연일 요동치는 주식 시장의 등락은 실물경제의 유동성에 기인하기보다는 화폐 소유자들의 심리적 공황에 크게 기인한다. 화폐가 야기한 그릇된 상상적 동일시의 부작용이겠다. 그러므로 체계가 발산하는 가치에서 벗어나 있는 기호들의 의미작용을 복원하는 것이 이후의 화폐 읽기의 숙제가 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화폐를 개입 가능한 ‘텍스트로서의 화폐’로 바라봄을 의미할 것이다(Horwitz, 1992, pp. 210~212). 화폐는 개별 주체들의 특수한 의미작용들로 인하여 열린 텍스트가 되며, 그와 같은 열린 텍스트는 복수의 개별 의미작용과의 관련 속에서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병권 (2005). 『화폐, 마법의 사중주』. 서울: 그린비.
 권택영 (1990). 『후기 구조주의 문학론』. 서울: 민음사.
 김경용 (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서울: 민음사
 도정일 (1993). 무의식과 욕망-프로이트와 라캉의 경우. 『문화과학』, 통권 3호, 97~119.
 안현효 (1996). 『현대 정치경제학의 재구성을 위하여』. 서울: 새날.
 원용진 (2007). 대중비평의 형성과 과정. 『문학과 사회』, 통권 80호

- 이진경 (2005). 「자본을 넘어선 자본». 서울: 그린비
 홍성일 (2003). 「화폐의 의미소통 구조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柄谷行人(가라타니 고진) (1990). マルクスその可能性の中心, 김경원 역 (2001). 『마
 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김경원 역, 서울: 이산.
 _____ (2001). *Transcritique*, 송태욱 역(2005), 『트랜스크리틱-칸트와 마르크스 넘
 어서기』. 서울: 한길사.
 浅田彰 (아사다 아키라) (1984). 逃走論 — ジギー・キッズの冒險, 문아영 역 (1999).
 『도주론』. 서울: 민음사.

Allen, G. (2003). *Roland Barthes*. 송은영 역 (2006). 『문제적 텍스트 틀랑/바르트』.
 서울: 앱피.

Althusser, L. (1965). *Pour Marx*. 이종영 역 (2002). 『맑스를 위하여』. 서울: 백의.
 Chandler, D. (2002). *Semiotics for Beginners*. 강인규 역 (2006). 『미디어 기호학』.
 서울: 소명.

Cleaver, H. (1995). The Subversion of Money-as-Command in the Current Crisis
 In Bonefeld W. & Holloway, J. (Eds). *Global Capital, National State and
 the Politics of Money*. 이원영 역 (1999). 현재의 위기에서 명령-으로서의-
 화폐의 전복.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207~259쪽), 서울: 갈무리.

Deleuze, G. (1969). *Logique Du Sens*. 이정우 역 (1999). 『의미의 논리』. 서울: 한길사.

Dodd, N. (1994). *The Sociology of Money: Economics, Reason and Contemporary Society*.
 이택면 역 (2002). 『돈의 사회학』. 서울: 일신사.

Dyer, A. (1989). Making Semiotic Sense of Money as a Medium of Exchange. *Journal
 of Economic Issues*, 23(2), 503~510.

Eagleton, T. (1996).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2nd Edition). 김현수 역 (2001).
 『테리 이글턴의 문학이론입문』. 서울: 인간사랑.

Fiske, J. (1990).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강태완·김선남 역 (2001). 『커뮤니
 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Fiske, J. & Hartley, J. (2003). *Reading Television with a new foreword by John Hartley*.
 London: Routledge.

- Ganßmann, H. (1988). Money - A Symbolically Generalized Medium of Communication? On the Concept of Money in Recent Sociology, *Economy and Society*, 17(3), 285~316.
- Hall, S. (1996). 문화연구와 베밍엄 연구소 몇 가지 문제들과 문제들.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137~202쪽), 서울: 한나래. (원저 출판연도 1980a).
- _____. (1980b). Recent developments in theories of language and ideology: a critical note. In S. Hall, D. Hobson, A. Lowe and P. Wills (Eds.), *Culture, Media, Language: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pp. 157~162). London: Hutchinson/CCCS.
- _____. (1996). '이데올로기'의 재발견: 미디어 연구에서 억압되어 있던 것의 복귀.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235~285쪽), 서울: 한나래. (원저 출판연도 1982).
- _____. (1996). 이데올로기의 문제: 보증 없는 마르크스주의.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29~59쪽). 서울: 한나래. (원저 출판연도 1983).
- _____. (1996). 의미작용, 재현, 이데올로기: 알튀세르와 후기 구조주의 논쟁.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61~101쪽), 서울: 한나래. (원저 출판연도 1985).
- Horwitz, S. (1992). Monetary Exchanges as an Extra-Linguistic Social Communication Process, *Review of Social Economy*, 50(2), 193~214.
- Jahilly, S. (1987). *The Codes of Advertising*. 윤선희 역 (1996). 『소비의 정치경제학 광고 문화』. 서울: 한나래.
- Lacan, J. (1996). '도난당한 편지'에 관한 세미나. 민승기·이민선·권태영 편역. 『자크 라캉 욕망 이론』(96~134쪽), 서울: 문예. (원저 출판연도 1956).
- Lewis, J. (2002). *Cultural Studies - The Basics*. London: Sage.
- Marx, K. (2006). 『경제학-철학 수고』. 강유원 역. 『경제학-철학 수고』. 서울: 이론과 실천. (원저 출판연도 1844).
- _____. (2004).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최인호역, 『칼 맙스·프리드리히 앵겔스 저작선집』(287~393쪽). 서울: 박종철출판사. (원저 출판연도 1852).
- _____. (2002).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 김호균 역. 서울: 배의. (원저출판연도 1857).
- _____. (2001). 『자본론 I(상)』. 김수행 역. 서울: 비봉. (원저 출판연도 1867).

- Mattelart, A. & Mattelart, M. (1998). *Theories of Communication - A Short Introduction* (S. G. Taponier & J. A. Cohen, trans.). London: Sage. (Original work published 1995).
- McLuhan, M. (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박정규 역 (1999).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Parsons, T. (1967). *Social Theory and Moder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 de Saussure, F. (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최승언 역 (1990). 『일반언어학 강의』. 서울: 민음사.
- Poulantzas, N. (1973).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홍순권·조형제 역 (1996). 『정치권력과 사회계급』. 서울: 풀빛. (원저 출판연도 1968).
- Simmel, G. (2005). 현대 문화에서의 돈. 김덕영·윤미애 (편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11~33쪽). 서울: 새물결. (원저 출판연도 1896).
- Smith, A. (2003). 『국부론(상)』. 김수행 역. 서울: 비봉. (원저 출판연도 1776).
- Spivak, G.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In C. Nelson & L.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pp. 271~313).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trange, S. (1998). *Mad Money*. 신근수 역 (2000).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 - 매드 머니』. 서울: 푸른길. (원저 출판연도 1998).
- Wennerlind, C. (2001). Money Talks, but What Is It Saying? - Semiotics of Money and Social Control. *Journal of Economic Issues*, 35(3), 557~574.

(최초 투고 2007. 11. 29, 최종 원고 제출 2008. 2. 5)

Reading "Money": Value and Signification of Money

Yong-Jin Won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s, Sogang Univ.)

Sung-II Hong

Ph.D candidate

Dept. of Mass Communications, Sogang Univ.)

The paper aims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money in terms of communication in which we can find the specific communicative and cultural form of money. In the modern capitalist society, we cannot limit money within the economical terms - for example, store of value, medium of exchange, unit of account and means of payment - because money mediates all human activities beyond the economic boundary and conveys specific meaning in the social and the cultural area. Money can be the medium of the cultural and the communication as well as the medium of the economic. In this respect, we've try to articulate money with linguistic or semiotic insight. Through this theoretical dialogue, we find two significations of money as a medium of communication. The first signification is meta-signification which drives the individual to the unlimited accumulation of the money. Meta-signification displace the second signification of the money that is the singular, over-determined and the mosaic significations. In this process money can be the signifier without signification. And then, money is the Master signifier which all sign should be identified imaginary. Finally, Money is not only the re-presentation (Darstellung) of all signs but also the representative (Vertretung) of all signs. But this double position creates some tensions and makes master signifier of money unstable. Marx's analysis of Bonapartism, which shares the linguistic or semiotic insight, shows the crack of the re-presentation between the representative. Like Marx's analysis, the money has the tension between two signification which makes the room for the struggle to signify.

Key words: money, medium, semiotic/linguistic, signification, the form of value, Bonapartism, and re-presentation/ representative